

연대의 밤

철도 파업 23일,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

일시 : 1월 21일 (화) 오후 7시 30분
장소 : 종로5가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

주최 : 노동자연대다함께

문의: 02-2271-2395, 010-8908-7912 이메일: mail@workerssolidarity.org

“철도 파업의 주인공,



조합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

23일간의 철도 파업. 모두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 준 시간이었습니다.
노동자연대다함께도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
철도 노동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동지애와 연대감을 전하고자,
뜨거웠던 23일간의 파업과 앞으로의 투쟁에 대해 얘기하며
회포를 푸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꼭 오셔서 연대의 밤을 빛내 주십시오.



1부 토론회 | 7시 30분 ~ 9시

23일간의 철도 파업과 2라운드 투쟁

연사 : **하현아**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장 **이정원**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

참가비: 5천 원 (장소대여료로 사용됩니다)

2부 연대가 어우러지는 밤 | 9시 ~ 11시

※ 술과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.

파업·연대·현장 투쟁을 말한다

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	김웅전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	박세중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장	박성수 성북승무지부장
허병권 서울기관차승무지부장	이종선 구로차량지부장	최광규 고양고속차량지부장	등

바통을 이어받은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

철도 파업에 연대한 지역대책위·노동자·학생들의 목소리